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⑥ 민중불교운동연합 통한 승가의 현실 참여

민중불교운동연합이 발기할 당시는 쿠데타에 의한 군사독재가 가진 모순과 질곡을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의무가 불교에 있었다. 이것이 불교인들이 민불련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이유이다. 타종교의 활발한 현실참여에 비교되면 불교계에서 단체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불교운동을 펼쳐 나가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는 국제적인 기금이나 지원에 의해 목사나 신부들이 활동했다면, 여익구는 스님들의 개인적인 주머니 사정에 의지했던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불련을 통해 불교적 역할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래서 그 때부터 하염없이 도망 다니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돈이 돈이 있어야 도망 다니지. 다행히 그 동안에는 스님들하고 깊게 사귀게 됐잖아요.”

국승가회의 발족을 지켜봤다. 또한 재야와 불교를 연결하는 장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의미 있는 역할은 승가가 불교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님들이 어느 순간 현실참여로 나타날 것이 아

이지는 불교계 수치,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등 일련의 사건에서 스님들이 깨어났다고 보았다.

월정사에 주석했던 탄허 스님은 민정학련에 연루됐던 여익구(법명: 벽정)를 자신을 시봉하는 제자로 받아들였다. 주위의 만류와 대중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당시 효당 스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제자로 오겠다는 벽정을 기어코 맞이했다. 벽정이 대중 생활에서 배제될 것을 알았던 탄허 스님은 24시간 제자인 여익구와 함께 했다. 벽정은 탄허 스님의 역사 인식과 함께 진보적 사고를 확인했다.

여익구는 대불련 사무총장으로 학생불자들을 이끌었다.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으로 선출돼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불교운동의 중심점이었던 인물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여익구는 용산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벽정 여익구에 탄허 스님은 정신적 지주였다.

“민중불교회는 다 깨졌어(대원안, 1975). 다 산산조각이 났고, 고은 선생이나 황석영 선생도 그 당시도 유명하니까 그 이상 사건화 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탄허 스님도 또 좀 고승이니까 허기도 그렇고, 요약으로 확인만 하더라도 나하고 전제성(대불련회장)이만 들어가 터지고 맞는 거지.”



한글회관 건물. 이곳에서 민중불교운동연합 모임을 계획하였다.

수배 중에도 여익구는 민불련을 추스르고, 혼란스런 와중에도 스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원했다. 1986년 6월에는 정토구현전

나라, 1977년 화엄산원에서 시작됐다고 그는 회고한다. 10·27법년의 역경, 대불련 지도법사단 구성, 신흥사 살인 사태로

일 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5 - 현명한 결정과 어리석은 결정

순간의 결정이 고통과 행복 만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결정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현명한 결정을 했을 때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때는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나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왕이 이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침공했다. 이 전쟁에서 패하자 왕과 왕자는 떠돌이처럼 변장을 하고 살았는데 누군가의 밀고로 강대국의 왕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했다. 이때 왕은 왕자에게 원한을 원한으로 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강대국의 왕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는다.

《법구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농부가 있었다. 농부는 장가를 들었는데 시집을 온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두 번째 며느리를 맞이했다.

훗날 왕자는 강대국 왕의 측근이 됐다. 어느 날 왕자는 강대국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왕이 피곤해 잠이 들었다. 절호의 기회를 잡은 왕자는 왕을 죽이려 하다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며 분노를 참고 검을 내려놓았다. 나중에 왕이 잠에 깨어나자 자신은 죽은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참았노라고 실토를 했다. 강대국의 왕은 죽은 왕의 덕에 감동해 왕자에게서로 해치지 말자고 약속했다. 왕은 자신이 정복한 왕국을 왕자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다.

두 번째 부인은 시집을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두 번째 부인만 좋아하고 자신을 멀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낙태시키는 약을 먹여 유산시켰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똑같이 유산시켰다. 두 번째 부인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자신의 유산이 첫 번째 부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

이처럼 깊은 원한을 가질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결정을 했을 때 두 사람은 원한을 품고 복수를 결정했다. 그래서 여러 생을 걸쳐서 고통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정복당한 나라의 왕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고

탐·진·치로 인한 어리석은 결정은 피하라

내려놓음·자비심으로 현명하게 결정해야

서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첫 번째 부인 때문에 아이도 죽게 되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두 번째 부인은 죽으면서 원한을 품고 첫 번째 부인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나중에 두 번째 부인은 죽어서 고양이로 태어났고, 첫 번째 부인은 죽어서 암탉으로 태어났다. 이번에는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가 와서 먹어 버렸다. 그래서 암탉은 원한이 사무쳐 죽으면서 고양이를 복수를 결심했다. 나중에 암탉은 죽어서 표범으로 태어났고 고양이는 죽어서 사슴으로 태어났다. 이번에는 표범이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사슴은 원한이 사무쳐 또 다시 표범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자신의 목숨마저 앗아간 적국의 왕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일으켰다. 아버지의 이런 마음은 자식의 마음마저 원한을 버리게 했다. 결국 아버지의 지혜롭고 진실한 판단이 자신도 원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식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삶에서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을 겪기도 하고 행복을 얻기도 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냄에 바탕을 둔 어리석은 결정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현명한 결정을 게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가 원한을 버리게 되어 두 번째 이야기는 어진 왕과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웃 강대국의



일목 스님(제따와나 비배선원장)

경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⑥

남의 보배 세는 것은 반 푼어치 이익도 없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며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之)”라고 사후를 하신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행복한 삶, 자연과 하나되는 삶,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소중한 참다운 성품이 존귀하다는 말씀이다.

남망국사)를 강의하다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젊은 시절의 경봉 스님에게 많은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어나 공부하겠다고 해 해인사로 가서 정진하는데, 은사스님께서 얼마나 당신 곁에 두시고 싶으셨는지 사라진 경봉 스님을 찾으려 경찰사에 신고를 하셨다고 한다.

봉도 중요하지만 나를 찾는 깨달음이 더 절실하다는 생각에 결망을 지고 감전 직지사 자리로 옮겼다.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잘 이해행중(信解行證)한 사람들은 밝은 지혜의 등불아래 괴로움을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살아왔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무명의 괴로움에서 헤매야 했다.

경봉 스님은 1915년 《화엄경》을 보다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어도 반 푼어치 이익이 없다(終日數他寶 自無半錢分)”는 구절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대목은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도사(都序)》 하권에 나오는 구절로 “설사 진실로 돈오(頓悟)를 했다 하더라도 끝내 전수(漸修)해야 한다”는 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러한 체험은 경봉 스님을 경전 공부에서 참선공부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봉 스님은 은사스님 몰래 내원사, 해인사, 금강산 마하연(摩訶衍), 석왕사 등 이름난 선원을 찾아다니며 참사를 찾아 정진했다. 통도사에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벗

은스님은 졸음과 망상으로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면 벽에 이마를 들이받아 피가 났다. 열음을 입에 물기도 했고, 그래도 마잔 가지면 산에 들어가 평평 울었다. 특히 입에 열음을 물고있던 이유로 이가 망가져 전부 틀니를 해야만 하였고, 후학들에게 언제나 정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몸을 상하지는 말 것을 당부했다.

누더기 옷에 다 떨어진 모자를 쓰고 직지사를 들어서는데, 방에 있던 만봉(萬峯) 선사(의)가 뛰어나와 춤을 추면서 크게 반기셨다. “공부하는 중이 오느냐. 공부하는 중이 왔구나.”

만봉 선사는 결망을 받아 들고 방으로 데려가서 새 옷을 입게 하고는, 땀내 나는 헌 옷을 손수 세탁까지 해주었다. 만봉 선사는 경봉 스님을 황악산 태봉(胎峯)으로 데리고 가서 한 편의 이야기 들려 주었다.



(다음호 계속)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미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ml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가마솥에 5일간 끓일 때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ml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사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